

# 청대 관우 숭배 현상과 경극 관우극의 발전\*

차미경\*\*

##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청대 관우 숭배 현상과 의미
3. 청대 관우 숭배로 인한 경극 관우극의 발전 양상
  - 1) 작품의 증가
  - 2) 전문배우의 출현
  - 3) 배역의 전환: 노생에서 홍생으로
4. 나오면서

## 1. 들어가면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관우(關羽)처럼 유명한 사람이 또 있을까? 관우1)는 그의 고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관제묘가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각 가정이나 회사에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1) 관우는 서기 200년 전후, 즉 후한말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전란기에 유비, 장비 등과 의형제를 맺고 활약했던 무장이다. 삼국 시대 촉(蜀)나라 하동(河東) 해현(解縣) 사람으로 자(字)는 운장(雲長)이며, 원래의 자(字)는 장생(長生)이다. 시호(諡號)는 장목후(壯穆侯)이며, 수염이 아름다워 미염공(美髯公)이라고도 불렸다. 죽은 뒤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어 '관성제군(關聖帝君)'이나 '관제성군(關帝聖君)'이라고도 불린다. 간단히 '관제군(關帝君)', '관제(關帝)'라고도 한다. 현재의 산시성(山西省) 원청시(運城市)인 하동군(河東郡) 해현(解縣) 출신으로, 이곳은 중국 최대의 염호(鹽湖) 해지(解池)가 있어, 소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한(漢)에서는 소금이 국가 전매품이어서 밀매가 성행했는데, 관우도 소금 밀매에 관여하다가 폭리를 취하는 염상(鹽商)을 죽이고 유주(幽州)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과 이름도 바꾸어 관우(關羽)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서도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다. 충의의 화신으로 약 2미터에 이르는 큰 키에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었으며 봉황의 눈에 누에가 누운 듯한 눈썹, 그리고 미염공(美髯公)이라 불릴 정도로 멋진 수염을 휘날리며 전쟁터를 누비는 관우의 모습은 영웅 그 자체인 것이다. 그의 이런 멋진 모습은 그와 동향인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의해 만들어졌다<sup>2)</sup>. 흔히 『삼국지연의』의 내용은 ‘사실이 7, 허구가 3’이라지만 관우는 ‘사실이 2, 허구가 8’일 정도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물이다.<sup>3)</sup> 소설을 통해 형성된 그의 이미지는 역사서에 남아 있는 실제 모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사(正史)인 진수(陳壽)의 『삼국지』<sup>4)</sup>에 의하면 그는 생전에 충용과 의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저 평범한 무장(武將)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sup>5)</sup> 종교적 가르침을 설파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지략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자신의 목숨도 유지하지 못하고 머리와 몸이 따로 묻혀야 했던 그런 평범한 ‘보통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사후에는 역사상 수많은 무장을 물리치고 역대 왕조에 의해 꾸준한 추앙을 받아 ‘후(侯)’, ‘공(公)’, ‘왕(王)’을 거쳐

2) 『삼국지연의』의 작가로 알려진 나관중도 관우와 같은 고향인 산서 사람이었다. 『삼국지연의』에서 작가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전설과 민간 예인들이 창작한 화본 및 잡곡 등 민간문학 속의 다양하고도 풍부한 요소들을 잘 수용하여 완벽한 관우형상을 창조해냈다. 이로써 관우는 예술적 전형으로 승화되어 또 ‘만들어진’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어 등장하게 된 것이다.

3) 이마이즈미 준노스케, 이만옥 옮김, 『관우』(예담, 2002), 16쪽 참조.

4) 진수(陳壽)의 『삼국지』는 모두 6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사인 이 책에는 위, 촉, 오 세 나라가 패권을 놓고 다툰 후한부터 삼국 시대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는 간결한 문체로 역사적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진수(233-297)는 삼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촉의 무장이었던 진식의 아들로 관우 사후 불과 40년 뒤에 태어났다. 이런 면에서 『삼국지』라는 사서는 크게 신뢰할 수 있지만 관우에 대한 언급이 불과 965자로 많지 않다.

5) 관우는 백마진 전투에서 첩첩 적진을 뚫고 들어가 적장 안량의 목을 베 왔으며, 훗날 형주 군을 이끌고 북벌할 시에는 팽덕을 참살하고 원군으로 온 우금까지 생포하여 무용을 과시한 바 있다. 또한 조조가 온갖 영화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선주 유비에 대한 충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뿌리치고 기회를 틈타 홀연히 돌아왔다. 오군에게 생포되어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도 손권의 유혹을 뿌리치고 결연히 죽음을 선택하는 의리를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그가 분명 충의의 화신인 것 만큼은 분명하지만 다른 장수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뛰어난 장수가 아닌 일반 장수에 불과하다.

‘대제(大帝)’로 추송되어, 마침내 공자의 문묘(文廟)와 함께 무묘(武廟)에 추대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도덕적 덕행과 종교적 영험함은 더욱 증가하여 유, 불, 도교 등의 종교와 민간신앙이 결합하여 지역신, 사찰을 수호하는 호법신(護法神), 국가를 수호하는 전쟁신, 상인집단의 보호신이자 재물신 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신, 의학의 신, 벽사신(辟邪神), 자손 점지신 등 만능신에 가까운 신이 되었다.

이런 관우숭배로 관우의 사당이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어 관우의 신격화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특히 청대에 이르러 관우 숭배는 최고조에 달했다. 청대의 시조인 누루하치와 홍타이지를 시작으로 관우 숭배는 더욱 본격화 되어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극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도 관우 사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관우의 충의적 성격이 더욱 부각되어 순치 연간에는 ‘충의신무관성대제(忠義神武關聖大帝)’로 추앙되었으며 건륭연간에는 이미 관우의 무묘가 공자의 문묘와 어깨를 겨루는 지위로까지 승격되었다. 이후 관우의 봉호는 가경도광 함풍 동치연간을 거치면서 광서 5년(1879)에는 ‘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호국보민정성수정익찬선덕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라는 26자에 달하는 봉호를 받았다. 이런 황제들의 추앙은 민간으로 더욱 확대되어 관우는 전지전능한 만능신으로 중국 민중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대 황제들과 민간에서 진행된 관우 숭배 열풍이 경극 관우극<sup>6)</sup>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대 황제들과 민간에서 관우 숭배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중적 인기를 끌던 경극 관우극 공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sup>7)</sup> 특히, 경극 형성기인 건륭시기부터 경극의 성숙기인 청대 말기까지를 중심

6) 관우를 주인공으로 한 전문 희곡(戲曲)을 ‘관공희(關公戲)’ 또는 ‘관우희(關羽戲)’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우극으로 통일하여 사용했다.

7) 관우의 신격화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관우극 공연에 대해서도 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청대 관우 숭배와 경극 관우극이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으로 어떤 변화를 갖는지 서술하고자 한다.<sup>8)</sup> 이를 통해 관공신앙이 희곡발전에 미치는 중국연극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아울러 조명해 보고자 한다.

## 2. 청대 관우 숭배 현상과 그 의미

중국은 역사상 다양한 인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다. 그중 관우는 가장 대표적이고 독특한 인물이다. 초기 관우 숭배는 위진남북조시기에 관우가 참살당한 곳인 형주(荊州)지역에서 여귀(厲鬼)가 된 관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민간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시작이었으나<sup>9)</sup>, 당대까지만 해도 관우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송대에 이르러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자 통치자들에 의해 관우의 영험함을 인정받으면서 충신의 형상으로 중시 받기 시작했다. 송 휘종 때는 충혜공(忠惠公)이라는 시호를 시작으로 남송 효종 때에는 의용무안 영제왕(義勇武安英濟王)이라는 긴 봉호를 받았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면서 관우 숭배가 보편화되게 된다. 『삼국지연의』가 출현한 명대에는 급기야 만력제(萬曆帝)에 의해 신의 최고등급인 관성제군(關聖帝君)에 봉해지면서 관우는 인간의 세계를 떠나 신의 전당으로 들어갔다.<sup>10)</sup> 이로 관우의 사당은 전국적으

8) 경극 발전의 역사는 대략 5단계로 나눈다. 1. 경극 형성시기(1790-1880). 2. 경극 성숙시기(1880-1917), 3. 경극 전성시기(1917-1938), 4. 경극 쇠퇴시기(1938-1949). 『中國京劇史』(中國戲劇出版社, 1990), 8-9쪽 참조.

9) 사람이 죽은 뒤에 돌아가는 것이 鬼이고, 鬼는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돌아갈 곳 없는 歸, 즉 비정상적으로 죽은자(횡사를 하거나 후사 없이 죽은 자)를 말하는데, 이를 厲鬼라 한다. 관우는 비정상적으로 목이 잘려 죽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기층 민중들의 집체적인 생각이었다. 陳志勇, 「關公戲演出禁忌的生成與禳解」(『戲曲研究』, 제75집), 183쪽 참조.

10) 한대부터 명대까지 관우가 받은 봉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 대 (西元)	작호, 시호(爵號, 諡號)
漢 獻帝 建安5年 (200)	漢壽亭侯
蜀 後主 景耀3年 (260)	壯繆侯
北宋 徽宗崇寧元年 (1102)	忠惠公
北宋 徽宗大觀2年 (1108)	武安王

로 보편화되고 신앙층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관우 숭배 현상은 청대에 이르러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정점에 도달했다. 관우 숭배가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극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도 관우 사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청대의 관우 숭배는 누루하치와 홍타이지부터 시작되었다. 청의 개국시조인 누루하치는 전쟁 승리의 원인을 관우의 신령이 보우한 결과로 선전하였으며 『삼국지연의』를 병법서로 여길 만큼 항상 곁에 두었다고 전한다.<sup>11)</sup> 이들은 입관하기 전부터 『삼국지연의』 속에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으로 묘사된 관공의 무술과 충성스럽고 의로운 의미지에 감복하였다. 그래서 홍타이지는 만주족에게 관우의 ‘충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성경(盛京, 지금의 심양)의 후문 지재문(地載門) 밖에 관공묘를 건립하고 ‘의고천고(義高千古)’라는 현판을 걸었다. 또한 그는 몽고 여러 부족과 합병하면서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삼국지연의』의 ‘도원결의(桃園結義)’를 모방하여 스스로를 ‘유비’, 몽골을 ‘관우’에 비유하여 명분상으로는 군신, 실제로는 형제 관계를 강조했다.<sup>12)</sup> 홍타이지 역시 『삼국지연의』를 매우 즐겨 읽었으며 달해(達海) 등을 시켜 만주어로 번역하게 한 후 팔기군관들에게 읽게 하였다.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하는 충의의 명장에서 신격화된 관제는 무공을 숭상하고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방민족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주었기 때문에 관공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전쟁신의 이미지로 만주 사회에 파고들었으며, 홍타이지도 관공을 매우 숭배하여 자주 관공 스토리를 이용하여 대신들을 교육시켰다.<sup>13)</sup> 이와 같은 관우 숭배 현상은 입관 후 만주족 통치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아래의 두 방면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北宋 徽宗宣和5年 (1123)	義勇武安王
南宋 孝宗淳熙14年 (1187)	義勇武安英濟王
元 文宗 天曆元年 (1328)	義勇武安顯靈英濟王
明 太祖 洪武3年 (1370)	漢前將軍壽亭侯
明 神宗 萬曆18年 (1590)	協天護國忠義大帝
明 神宗 萬曆42年 (1614) 熹宗 天啓4年 稱祀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

11) 王嵩儒, 『掌故拾零』.

12) 蔣瑞藻, 『小說考證拾遺』(中華書局, 1986), 3566쪽.

13) 莊吉發, 『從薩滿信仰到關帝崇拜』(『清史講義』, 實學出版社, 2002), 107쪽.

진행되어 관우 숭배의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관우를 황실제사와 국가제사체제에 편입하고 격상시켰다. 청 태종은 즉위한 이후부터 한족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청조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여러 방면에 걸쳐 개혁을 진행시켰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만주족의 샤머니즘 신앙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샤머니즘 신앙과 관우 숭배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만주족들은 샤머니즘을 믿었는데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제단에 관공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제사는 자금성 내 곤녕궁(坤寧宮)에서 지냈는데, 매일새벽 4시 무당의 주재 하에 황제와 황후, 대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냈다. 관공 제사는 매일 지내는 '일제' 중 새벽에 지내는 '조제(朝祭)'에 속한다. 조제는 석가모니와 관음보살, 그리고 관공을 함께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일련의 의식이 끝나면 석가모니와 관음보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관제에게만 산 돼지를 놓고 따로 제사를 지냈다.<sup>14)</sup> 이때 무당은 허리에 신도(神刀)를 차고 신가(神歌)를 부르며 제사를 주재하였다. 그리고 관공상 아래 놓여 있는 산 돼지 귀에 물을 부으면서 공수를 내렸다. 일련의 의식이 끝나면 이 돼지는 '신육(神肉)'이라 하여 삶아서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이처럼 청 황실의 관공에 대한 숭배는 그들이 믿는 샤머니즘과 서로 결합하여 궁중제사의 일부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모셔졌던 것이다. 이처럼 관우가 청 황실의 샤머니즘 제사의 대신으로 숭봉되어진 것으로 청 황실에서 관우의 추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 정부는 명대의 국가제사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관우제사를 군사(群祠)<sup>15)</sup>에 포함시켜 제사를 지냈다. 순치제는 원년에 "지안문 밖 완평현 동쪽에 관제묘를 세우고 5월 13일에 관원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다".<sup>16)</sup> 또한 순치 9년

14) 유지원, 「청대 황실제사의 샤머니즘적 성격-당자와 곤녕궁 제사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23집, 304-305쪽.

15) 청조의 주요 황실제사에는 크게 황제가 친히 主祭하는 大祀, 황제 혹은 파견된 관리가 주재하는 中祀, 그리고 관리가 주재하는 群祀가 있다. 大祀에는 圓丘·方澤 祈穀 雩祭 太廟 社稷 등이 있고, 中祀에는 日月 歷代帝王 先師孔子 先農 先蠶 天神 地祇 太歲 등이 있으며, 群祀에는 先醫 龍王 등의 廟와 賢良 昭忠 등의 祠가 있다. 萬依 王樹卿 劉路, 『清代宮廷史』(百花文藝출판사, 2004년), 243쪽.

16) 『欽定大清會典事例』, 권438, 976쪽.

에 관우를 ‘충의신무관성대제(忠義神武關聖大帝)’로 봉함으로써 그 위상을 높였다. 이에 옹정연간에는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옹정제는 각 성에 관제대묘를 세워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사를 지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관우의 증조와 조부 그리고 부친 등 3대에게 봉호를 하사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sup>17)</sup> 이처럼 관우의 제사가 많아지고 관우의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황제들의 관우 숭배 정도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륭제 역시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 관제와 관우 3대에 대한 제사를 더욱 체계화하고 융성하게 드렸다.

이렇게 진행된 관제의 국가제사는 함풍제 때에 제례 등급을 중사(中祀)로 승격시키면서 최고점에 도달하였다.<sup>18)</sup> 이런 융성한 중사로 관우는 역대 제왕이나 문창제군 등과 동등한 지위로 제전에 올랐던 것이다. 이는 함풍제가 태평천국의 난 등으로 국가가 혼란해지자 관제의 힘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이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친히 관제묘에 가서 제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내우외환 등으로 국가의 혼란이 심해지자 동치제 역시도 관제묘에서 제례를 행했다.<sup>19)</sup> 이런 황제들의 숭배로 인해 관제묘의 등급은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육성되어 전국적으로 세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관우의 봉호가 지속적으로 승격되었다. 우선 순치제는 명대 신종이 관우에게 봉한 ‘삼계복마대제신위원진천존관성제군(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제군’을 ‘대제’로 승격시켜 ‘충의신무관성대제(忠義神武關聖大帝)’로 봉했다. 이 봉호로 알 수 있듯이 순치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우의 ‘충의’ 정신이고 그 다음은 무공이다. 이로 청 정부가 관우의 충의를 강조하면서 한족 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고, 또 무공을 통해 전신(戰神)으로 청 정부를 지켜주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모든 황제들은 이런 방침을 유지하며 관우의 ‘충의’와 ‘신무’라는 기본적인 봉호는 고치지 않고 따라 썼으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다 추가적으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17) 『清朝文獻通考』, 권105, 5772쪽.

18) 『欽定大清會典事例』, 권438, 978쪽.

19) 王政堯, 『清代戲劇文化史論』(北京大學出版社, 2005), 110쪽.



예를 들면, 건륭 33년(1768)에는 신강(新疆)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청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평정했는데, 이때 관우의 영험한 덕에 의해 반란을 진압했다하여 '충의신무'에 '영우(靈佑)' 두 글자가 더해져 '충의신무영우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關聖大帝)'가 되고 전투에 강한 '전신(戰神)'의 이미지가 한층 부각되었다.<sup>20)</sup> 가경 18년(1813)에 관우는 또다시 영험함을 발휘한다. 한 밤중 역모를 꾀하던 임청잠(林淸潛) 일당을 추격하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관표가 스스로 타올라 소탕에 큰 도움을 주었다하여 '인용(仁勇)' 두 글자를 더해 '충의신무영우인용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關聖大帝)'로 봉했다.<sup>21)</sup> 이어서 도광 8년(1828)에는 신강의 장격이(張格爾)의 난을 평정했다하여 '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關聖大帝)'로 봉했으며, 함풍 연간에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했다하여 '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호국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關聖大帝)', '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호국보민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關聖大帝)'로 봉했다. 또한 동치 9년(1870)에는 염군기의(揜軍起義)를 진압했다하여 '익찬(益贊)'을 더해 봉했으며, 광서 5년(1879)에는 마침내 '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호국보민정성수정익찬선덕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로 봉해 관우에 대한 숭배가 극에 달하였다. 위의 봉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청대 관우의 봉호 변화

연 대(西元)	작호, 시호(爵號, 諡號)
清 世祖 順治9年 (1652)	忠義神武關聖大帝
清 世宗 雍正3年 (1725)	관우 三代를 모두 책봉
清 高宗 乾隆33年 (1768)	忠義神武靈佑關聖大帝
清 仁宗 嘉慶18年 (1813)	忠義神武靈佑仁勇關聖大帝
清 宣宗 道光8年 (1828)	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關聖大帝
清 文宗 咸豐2年 (1852)	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關聖大帝
清 文宗 咸豐4年 (1854)	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關聖大帝
清 穆宗 同治9年 (1870)	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翊贊關聖大帝
清 德宗 光緒5年 (1879)	忠義神武靈佑神(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

20) 『欽定大清會典事例』, 권438, 977쪽.

21) 『關聖帝君聖蹟圖誌全集』, 권3.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우는 강희제를 제외한 모든 황제로부터 새로운 봉호를 받으면서 추송되었다. 특히, 합풍제 때에는 많은 시호가 내려졌는데, 이는 관제가 내외외환이 심하던 이 시기에 전개된 태평천국과 같은 대규모 반란과 각종 대외전쟁에서 호국과 보민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광서제 때에는 26자에 달하는 봉호가 내려졌고, 이런 봉호의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바로 충의이고 신무이다. 관우는 청대 황제들의 충의의 화신으로 청 정부를 이끌어가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으며 신묘한 무공을 지닌 전쟁신으로 청 정부를 지켜주었기에 황제들마다 그에게 많은 시호를 내리면서 극진하게 대우했던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이와 같은 청 정부의 극진한 관우숭배로 관제묘는 더욱 보편화 되고 전국화 되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장려로 관우 숭배는 그 신력의 존재여부와는 별개로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험함은 더욱 쌓여 민간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22)</sup> 특히, 유불도 삼교에서 관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관우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sup>23)</sup> 게다가 여기에 사대부들은 관우의 이름으로 각종 선서(善書)<sup>24)</sup>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관우가 만능의 신이 되는 데 일조했다. 관우는 인간의 수명과 벼슬을 주관하고, 과거 합격을 도우며, 질병치료 및 각종 재앙을 제거해 주고 사악한 잡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또 반역자를 징벌하고 저승의 순찰도 담당하며 나아가 상인을 보호하여 큰 재물을 얻게 해주는 등 그야말로 만능신에 가까운 법력의 소유자가 되었다.<sup>25)</sup> 이로 민간 사회에서 관우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신으로 추앙받아 민중들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중국인들은 관우를 가장 영험한 신으로 믿어 북경은 물론이고 전국

22) 葉紹翁, 『四朝見聞錄』甲集(北京中華書局, 1997), 32-33쪽.

23) 유교는 관우의 인격정신인 충의를 받들어 문형성제 혹은 산서부자, 관부자라 하여 아성이 현으로 추앙하였다. 불교는 관우가 죽은 후 옥천산에서 지의선사에 의해 대오했다하여 사찰의 수호신이자 호법신인 관제보살, 가람보살, 개천보살로 받들어 모셨다. 도교는 관우가 치우를 물리치고 해주의 염지를 해갈시켰다하여 탕마진군, 복마대제, 승성진군, 익한천존 등으로 받들었다.

24) 善書란 善의 실천을 권하는 통속윤리서로, 권선징악을 위한 민중 도덕과 관련된 사례나 전설 등을 실은 책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림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관우와 관련된 선서류에는 『關聖帝君覺世寶訓』, 『關帝覺世眞經』, 『關帝明聖經』, 『關帝顯聖寶卷』, 『護國佑民伏魔寶卷』, 『戒士子文』 등이 있다.

25) 이화승, 「관공신앙과 산삼상인의 발전」, 『동양사학연구』 제112집 참조.

산간벽지에 이르기 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관제묘를 세워 그들의 기원을 기탁했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관우의 숭배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이런 관우 신격화의 완성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관우는 청대 황제들에게 충의의 화신이자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았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는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와도 같은 만능신이 되어 추앙을 받았다. 이는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숭배현상이라 할 수 있다.

### 3. 청대 관우 숭배로 인한 경극 관우극의 발전 양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대의 관우 숭배는 황제들의 추존과 민간의 신앙심에 의해 청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말기에 이르면서 최정점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관우 숭배 현상으로 황실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관우에 대한 열풍이 불어 무대에서 그를 만나기를 희망하고 좋아해 관우극은 자연히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대 관우극은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관우의 이런 숭배가 대중적 인기를 끌던 경극 관우극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살펴보고자 한다.

#### 1) 작품의 증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대 초기부터 진행된 관우 숭배는 전국에 관제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일반 민중들은 전능신인 관우에게 그들 일상의 모든 것을 기원했다. 민간에서의 관우 숭배 분위기는 이처럼 절정에 이르렀다. 민중들에게 평소에는 휴식 장소로 명절에는 공공오락의 장소로 관제묘는 늘 그들과 함께 했다. 이런 관제묘 안에는 보편적으로 관우의 제삿날이나 묘회(廟會)라는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무대를 설치하여 전통극을 공연하였다. 그들은 관제묘에서 제사를 올림과 더불어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관우신께 기구와 감사를 표시했

다.<sup>26)</sup> 더욱이 민간, 특히 산서상인들에게 재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관우는 상인들의 결속기관인 회관에서 아침저녁으로 모셔졌고 특별한 날에는 회관무대에서 연극공연으로 또한 기구와 감사를 드렸다.<sup>27)</sup> 이런 공연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관우가 멋지게 등장하는 관우극이 자주 공연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청초의 황제들은 성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관우 공연을 금지시켰다.<sup>28)</sup> 그러나 이런 금령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공연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건륭 초기에도 이런 인식이 별로 바뀌지 않아 배우들이 “역대 제왕·왕후·충신열사·선현·성인의 모습으로 분하는 것을 금지한다”<sup>29)</sup>고 했지만 건륭제 본인은 그 어느 황제보다도 연극을 좋아해 궁정 안에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신들에게 삼국지 스토리를 가지고 극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240막에 달하는 대형 역사극인 「정치춘추(鼎峙春秋)」를 만들게 했다.<sup>30)</sup> 그 중 상당 부분이 관우가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때는 아직 경극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 주로 다른 지방극이 중심이 되어 공연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경극은 1780년 건륭제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북경에 온 안휘성의 극단인 휘반을 중심으로 휘조, 한조, 곤곡, 방자 등 여러 지방극의 특징을 융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극종이다. 그래서 경극 형성시기인 초기에는 관우극이 그리 많지 않았다. 지금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汜水關」·「虎牢關」·「臨江會」·「華容道」·「取長沙」 등이 있고.<sup>31)</sup> 당시에 유명 배우들이 공연한 작품을 정리해 봐도

26) 제사 드릴 때 제물과 함께 가무나 연극 등을 바치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면면히 내려오던 전통이었다. 송금원시기의 사묘에 이미 전문화된 공연무대인 舞亭이나 樂樓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신에게 기구 감사를 올릴 때 연극을 바치는 것이 가장 좋은 봉헌이라는 의식이 이미 일반화되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27) 산서(山西)상인들은 의리와 신용의 표상으로 산서 해주출신인 관우신을 모셨다. 대다수의 산섬(山陝)회관에는 회관의 중앙에 관우의 신상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제사일 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경배했다. 중국인들은 향토의식이 아주 강한 편이라 산서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토의 영웅인 관우를 신으로 추대하고 그들이 진출하는 행선지마다 그 신상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를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28) 昭槎, 『嘯亭雜錄』(中華書局, 1980), 5040 참조.

29)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39쪽.

30) 昭槎, 『嘯亭雜錄』(中華書局, 1980), 377-378쪽 참조.

31) 도광4년에 승평반에서 공연한 관우극 작품명이다. 金耀章, 『中國京劇史圖錄』(河北教育出版社, 1994), 12쪽.

「戰長沙」, 「華容道」, 「古城會」, 「臨江會」, 「取南郡」, 「青石山」 등 몇 편에 불과하며 주로 노래 위주의 공연이었다.<sup>32)</sup> 그러다가 경극 성숙기인 광서 중엽이후 관우극 공연은 청초 이래 최전성기를 맞이한다. 내외외환 등으로 황제들이 관우를 극진하게 추존하며 관우 숭배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관우극을 통해서 '성현을 찬양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대량의 관우극 작품이 창작되었다. 이는 배우이며 동시에 창작자인 '살아 있는 관우[活關公]'로 불려지던 왕홍수(王鴻壽)가 등장하면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는 중국 연극사상 최초로 관우극을 전문적으로 연기한 전문배우로 『삼국지연의』와 『삼국지평화』, 그리고 민간전설을 근거로 하여 30여 편의 관우극을 창작하여 관우극의 경지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 작품과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출처	내용
斬熊虎	彭宗古 關帝外記와 孤本元明雜劇· 桃園結義에서 보임	蒲州에서 熊虎부자와 현령이 결탁하여 부녀자를 억지로 취하자 관우는 이에 분노하여 옹호와 현령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 병사가 추격해오자 관음보살이 점지해주신 맑은 샘물로 얼굴을 씻었는데 붉은 얼굴로 변했다는 내용이다.
走範陽		관우가 옹호를 죽인 후 範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도중에 麻姑묘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 꿈속에서 마고선녀가 兵書戰策·春秋左傳·春秋刀譜 세권을 주었고, 아울러 춘추도법과 '拖刀計'를 전수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三結義	삼국연의 제 1회	관우가 살인 후 涿郡으로 망명하다가 장비와 무예를 겨루고, 또 유비를 만나게 되어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맺는 내용이다.
造刀投軍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맺은 뒤 함께 종군하기로 하고, 대장장이를 불러 병기를 만들게 하였다. 관우의 무기에 뱀 한마리가 기어오르더니 선혈을 토하였고, 칼은 붉은 빛을 띠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청룡언월도라 부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斬車胄	삼국연의 제21회	유비가 원술을 격파한 후 자립을 계획하여 徐州에 주둔하자, 조조는 車胄에게 유비를 죽이라 밀령을 내린다. 차주와 陳登이 공모하였으나, 후에 진동이 관우에게 누설하여, 관우가 차주를 죽이는 내용이다.
(溫酒)斬華	삼국연의 제 5회	제후들의 연합군이 동탁의 수하인 화웅에게 연달아 패하자, 관

32) 경극 형성기에 관우극을 연기한 배우에는 미희자와 정장경이 대표적이라 그들이 공연한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노생배역이기에 주로 노래를 통해 공연했다.

雄		우가 나서게 된다. 이때 조조가 술을 권하였는데, 관우가 화을 배고 돌아와서도 그 술이 여전히 따뜻했다는 내용이다.
虎牽關	삼국연의 제 5회	유비, 관우, 장비가 여포와 교전을 벌이는 내용이다.
封金挑袍	삼국연의 제 26-27회	조조에게 투항하였던 관우가 유비의 소제를 알게 되자 바로 조조가 준 선물들을 모두 봉하고 떠나려 한다. 조조는 관우를 전송하며 면포를 선물하지만 관우는 계략에 빠질 것을 걱정하여 말 위에서 면포만 받아들고 떠나간다.
新野慈放		徐庶가 집을 치고 관우에게 삼일 후 新野의 서쪽 교외에서 한 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둘을 죽여야만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거라 하였다. 과연 그날 상복을 입은 부인이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관우는 차라리 천수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무고한 이들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진영에 돌아오자 서서는 관우에게 만약 천수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月下)斬貂蟬		조조가 미색으로 관우를 미혹시키고자 초선을 보냈으나, 관우가 그녀를 죽였다는 내용이다.
屯土山	삼국연의 제25회	관우가 下邳 土山에서 궁지에 빠지게 되고, 張遼와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조조에게 투항한다.
破壁觀書	삼국연의 제25회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하자 조조는 두 형수와 관우에게 한 방을 쓰도록 한다. 하지만 관우는 칼로 벽을 만들고 밤새 책을 읽었다는 내용이다.
三許雲陽	삼국연의 제26회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하였을 때,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내용이다.
斬顏良	삼국연의 제25회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하자 조조는 그를 매우 후하게 대접한다. 후에 원소의 대장 顏良에게 조조군이 참패하자 관우가 출전하여 안량을 벤다는 내용이다.
誅文醜	삼국연의 제26회	원소는 안량이 패하자, 다시 文醜를 유비와 함께 延津으로 보내 조조의 진영을 공격하게 하였지만, 연이어 패하게 된다. 관우가 명령에 따라 문추를 죽이고, 유비는 관우의 소제를 알게 된다.
贈袍賜馬	삼국연의 제26-27회	유비의 소제를 알게 된 관우는 바로 두 형수를 모시고 許都로 떠나려 하고, 조조는 관우를 전송하며 면포를 선물한다. 관우는 계략에 빠질 것을 걱정하여 말 위에서 면포를 받아들고 떠나간다.
破(戰)汝南	삼국연의 제26회	황건적 劉闢과 龔都가 汝南를 점거하였을 때, 관우가 출전하였다가 손건에게 유비의 소제를 듣게 된다. 유벽과 공도는 거짓으로 패하고, 관우는 여남으로 들어가게 된다.
過五關	삼국연의 제27회	관우가 許昌을 떠나 다섯 관문을 지나가면서 조조의 여섯 장수를 베며 위험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다.
收周倉	삼국연의 제28회	오관을 통과한 관우가 비를 만나게 되자 郭常이라는 노인의 집

		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곽씨의 아들이 산적 裴元紹와 공모하여 두 형수를 겁탈하려 하였다. 배원소는 관우를 보자 탄복하였고 周倉 또한 자신을 거두어달라고 청한다. 관우는 두 사람에게 산중에 남아 있으라고 훈계를 한다.
收關平		도원의 형제들이 古城에서 다시 한데 모인 뒤, 어느 날 관우가 關定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평소 관우의 인의를 경모하였던 관평이 자신의 아들 關平을 거두어 달라 청하였고, 관우는 그를 수양아들로 삼게 된다.
古城會	삼국연의 제28회	관우가 古城에 가까워져 장비와 서로 기뻐하며 만나게 된다. 그러나 장비는 조조의 진영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관우를 의심하고, 관우가 해명을 하려 할 때 蔡陽이 추격해 오자, 장비는 더욱 오해를 하게 된다. 관우는 이에 채양을 죽이고서야 오해를 풀게 되었다.
漢津口	삼국연의 제42회	조운이 포위를 뚫고 와 阿斗를 유비에게 안겨주자, 유비는 아들을 내던지고 조운을 걱정하였다. 조조의 병사가 추격해오자 관우는 江夏에서 지원군을 이르게 하여 조조군을 무찌르고 유비는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臨江會	삼국연의 제45회	주유가 유비를 속여 강을 건너게 하고, 매복을 두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관우가 뒤따라 호위하는 것을 보고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유비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華容道	삼국연의 제50회	제갈량이 조조가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관우를 제외한 모든 장수를 보내 요격하게 하였다. 이에 관우는 심기가 불편하였으나, 華容道로 가 매복을 하였다. 과연 조조가 오직 십여 명 만을 데리고 이곳에 이르렀다. 조조는 관우에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달라 간청하였고, 관우는 결국 조조를 도망가게 해준다.
戰長沙	삼국연의 제53회	관우가 長沙를 공격할 때, 수장 韓玄이 노장 黃忠을 출전시킨다. 말에서 떨어진 황충을 관우가 풀어주자, 다음날 황충은 관우의 투구 끈만 맞추었다. 한현은 황충이 적과 내통하였다고 그를 죽이려 하였는데, 魏延이 한현을 죽이고, 유비에게 투항한다. 유비는 다시 예를 다하여 황충에게 투항할 것을 권한다.
單刀會	삼국연의 제65회	荊州를 다시 취한 유비가 長沙·零陵·桂陽 3군을 돌려주는 척만 하자, 손권의 사신 諸葛瑾이 관우에게 제차 요구하였으나 관우는 응하지 않았다. 魯肅은 조급하여 연회를 열어 관우를 초청하고 부장을 잠복시켰다. 연회장에서 노숙이 형주 반환을 요구하자, 관우는 취한 척 하며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한 손에는 노숙을 붙들었다. 東吳의 장수들은 노숙이 다칠까 우려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고, 관우는 안전하게 형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取襄陽	삼국연의	손권은 아들을 관우의 딸과 혼인시키려 사신으로 제갈근을 보

	제73-74회	냈으나, 관우는 거절하였고, 이에 손권은 크게 노하여 조조와 연맹을 맺을 결심을 한다. 유비가 漢中王에 올라 은밀히 관우에게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라 지시한다.
水淹七軍	삼국연의 제73-74회	유비가 漢中王에 오르고 난 뒤, 관우에게 형주의 군사를 일으켜 襄陽을 공격하게 하였다. 관우는 양양을 돌파하고 조조의 樊城을 침공하였고, 큰 비가 내려 침수되는 지형을 이용하여 七軍을 수몰시켜 于禁을 생포하고 龐德를 참수하였다.
走麥城	삼국연의 제75-77회	조조가 관우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영토를 할양하였다. 손권은 형주를 얻을 것을 압박리에 약조 받고 귀로를 차단한다. 손권이 보낸 呂蒙이 병을 핑계로 진공하지 않자 陸遜이 계략을 내 여몽 대신 도둑이 된다. 관우는 그를 우습게보고 방비를 하지 않은 채 번성을 공격한다. 그 사이를 틈타 여몽은 형주를 얻고, 徐晃과 협공하여 관우를 대패시켰다. 관우는 麥城으로 퇴각하여 지원군을 기다렸으나, 포위되어 사로잡히고 만다.
(雪夜)破羌兵	삼국연의 제94회	曹眞이 제갈량에게 연패하자, 西姜에서 철거병을 빌려 추군을 기습하려 하였다. 제갈량은 눈발에 함정을 파 놓아 추격해오는 서강의 전차와 병사들을 굴러떨어지게 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위의 작품들은 관우의 일생을 거의 전부 다룬 작품들로, 초기의 단편적인 몇 작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우극은 재탄생되었다. 이런 현상은 청말에 와서 관우의 신격화가 더욱 부각되면서 다른 극목과는 다른 특수한 공연분위기를 창출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전문배우의 출현

위에서 언급한 관우극 작품들은 배우들에 의해 경극 무대에 올려졌다. 청대 배우 중 관우 역할로 유명한 배우에는 미희자(米喜子), 정장경, 왕홍수 등이 있다. 경극 형성기에는 미희자와 정장경이 관우역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면, 경극 성숙기에는 '살아있는 관우'로 불리는 관우 전문 배우인 왕홍수가 관우역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우역은 경극무대에서 여러 배우들의 전문적인 연기를 거쳐 독특한 풍격을 갖춘 관우극이 형성되었다.

북경 무대에서 최초로 관우를 연기한 배우는 미희자이다. 미희자(1780-1832)



는 미응선(米應先)으로 자는 석천(石泉) 호는 도림(桃林)이고 호북사람이다. 그는 예술과 인격이 훌륭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미희관(米戲官)' 혹은 '미선생(米先生)'이라 불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연극을 배웠으며, 성량이 풍부하고 웅장하며 생동적인 연기로 유명했다. 그는 당시 삼경반에서 이런 자신의 특징을 살려 관우극의 대표작인 「전장사」를 공연하며 북경에서 '미희자가 공연을 하면, 관공이 되살아난다'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 번은…… 그가 술 한 병을 들고 대기실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무대 의상을 입고 앉아 있던 그는 손으로 뇌문을 쥐더니 등장하려 할 때 가져온 술을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는 수염을 걸고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당시 관우가 등장할 때에는 지금과 다르다. 당시에는 왼손의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은 소매를 받쳐 들었다. 그가 무대 중앙에 이르러 소매를 내리며 동작을 취했다. 미희자가 수수를 내리자 관중은 깜짝 놀랐다. 무대 앞에서 극을 보던 관원과 일반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평상시에 보던 붉게 분장한 얼굴이 아니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검은 사마귀가 있고 봉황 눈에 긴 수염을 단 살아 있는 관우였다. ……미희자가 공연을 하면, 관공이 되살아난다(一次, …他一進後臺, 就把一壺酒放在化粧桌上, 而後穿行頭, 穿好後就坐下來用手捏腦門, 在快上場時, 一口氣把一壺酒喝光, 然後戴上髯口, 從容上場. 那時, 關公的出場和現在不一樣, 當時是用左手水袖遮面, 右手揪住袖角, 到臺口再落水袖亮相. 當米喜子一落水袖時, 臺下就亂套了, 前臺有些聽戲的官員平民跪下一大片——在他們眼前的, 不是常看的, 揉紅臉的關公, 而是一位面如重棗, 臉有黑痣, 鳳目長髯的活關公……米喜子一演戲, 關老爺就顯聖)<sup>33)</sup>.

이처럼 미희자의 관공 연기는 너무도 뛰진하여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관성제군과 혼란을 느끼게 하여 관중들로 하여금 인간과 신을 분별치 못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이런 효과는 술 때문으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고 검은 사마귀가 있고 붉게 충혈된 눈에 긴 수염을 단 살아 있는 관우가 등장하자, 평소 그를 추앙하던 관중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로 그의 분장과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다.

33) 李洪春, 劉松岩, 『京劇長談』(中國戲劇出版社, 1982), 52쪽.

미희자가 이렇게 관우와 흡사한 무대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관우에 대한 그의 지극한 신앙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원외사(梨園外史)』에 의하면 미희자는 집 안에 관우신상을 모셔놓고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웠으며, 매달 15일에는 반드시 정양문에 있는 관묘에 다녀왔다고 한다.<sup>34)</sup> 미희자의 이런 관우 숭배 방식과 정교한 예술표현은 후대 관우극을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대표적인 배우는 삼경반에 같이 있던 정장경(程長庚)으로 미희자의 관우극을 계승 발전시켰다.

정장경(1811-1878)은 안휘성(安徽省) 잠산(潛山) 사람으로, 이름은 춘(椿), 자는 옥산(玉山)이다. 경극 형성기에 활동한 '삼인방' 배우 중에 그가 가장 유명하다. 그는 당시 북경에 유행하던 여러 지방의 음악을 익혀 경극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휘반의 영수, 경극의 비조, 배우계의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는 함풍(咸豐)시기에 궁정에서 공연을 주관하던 기관이 승평서(昇平署)로 바뀌면서 이곳에 소속된 3개의 안휘극단인 춘대, 삼경, 사회극단을 총관하였으며 배우계의 대부가 되어 평생 연극배우단체인 정충묘(精忠廟)의 대표를 지냈다.

정장경은 안휘지방의 연극배우인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안휘극단에 들어가 연기수업을 받았다. 후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온 그는 몇 차례 공연을 하지만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전장사」에서 마치 관우가 살아온 듯한 연기로 명성을 얻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유명하지 않을 당시 공연을 하기 위해 극단을 찾아다녔다. 극단주는 그가 무명하다고 무시하며 “당신은 무슨 극을 할 수 있느냐?”고 비웃으며 물었다.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관우극은 대략 모두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극단주는 그가 호언장담으로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며 그냥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무대에 올려 그 진위여부를 살펴보려 했다. 그가 선택한 극은 「전장사」로, 얼굴 분장을 할 때 먼저 연지를 발랐는데 이는 당시 관우의 얼굴 분장 방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무대에 나온 후 관과 검은 기백이 있고 웅대하며 노래는 비장하고 시원하여 마치 그때의 관우가 세상에 있는 듯하여 관객들은 모두가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했고 극단주

34) 潘鏡美 陳墨香 『梨園外史』(北京寶文堂書店, 1989), 26-27쪽 참조.

는 하늘을 향해 경탄하며 시들지 않아 그는 한 번에 극단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當其微時，行於某班而求演唱，班主侮彼之無名，作色曰：汝能何戲？彼不假思索而答曰：關公戲大抵皆能。班主以爲大言欺人，姑妄聽之，不妨於登場時，一觀其究竟。彼所選之戲，爲戰長沙，開臉之祭，先塗胭脂，一破當時扮演關公之臉譜。迨出場後，冠劍雄豪，音節慷慨，如當年關羽之再世，觀客皆嘆爲得未曾有，班主仰天警嘆，稱道弗衰，彼一舉而得有劇壇明星之譽。<sup>35)</sup>

「전장사」는 관우와 황충이 장사에서 한판 싸움을 벌이는 내용으로, 관우로 분장한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우렁차며 비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는 마치 관우가 살아있는 듯하여 관중들은 그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장경은 일거에 연극계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

이후 그는 오랫동안의 무대 경험을 축적하여 「전장사」를 또 한 번 발전시켜 사람들은 그가 무대에 창조한 관우는 “그 형상이 단정하고 장중하며 노래와 대사가 정교하고 생동적이다”<sup>36)</sup>고 평가했다. 정장경이 연기한 관우극은 「戰長沙」 외에도 「華容道」, 「古城會」, 「臨江會」, 「取南郡」, 「靑石山」 등이 있다. 그는 도광연간부터 동치연간에 이르기까지 삼경극단을 이끌고 주요 노생배우로 활동하였다. 노생배우로서 그는 관우극 이외에도 문소관(文昭關)의 오원(伍員), 취성도(取成都)의 유장(劉璋), 군영회(群英會)의 노숙(魯肅) 등의 역할을 잘 연기했다. 그의 빼어난 연기는 모두 탁월하여 후대에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

정장경 이후 관우극을 개혁하여 걸출한 성취를 이룬 배우는 ‘관우극의 비조’라 불리는 왕홍수이다. 왕홍수(1850-1925)는 예명은 삼마자(三麻子) 혹은 삼노판(三老板)으로 안휘사람이다. 그는 광서 중엽 이후 북경과 상해에서 관우극 하면 연상될 정도로 관우극 전문배우로 유명했다. 그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상해에 적을 둔 상해 배우답게 기존의 작품이나 표현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상해의 실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경지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관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표현예술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관우극 공연에서 규제하던 여러 가지

35) 波多野乾一著，鹿原學人譯齊，『京劇二百年之歷史』(上海啓智印務公司出版，1926)。

36) “造型端莊，唱念講究，聲形兼致，生動傳神”

표현기법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새로운 멋진 관우 형상을 창조했다. 그의 걸출한 성취를 소설안(蘇雪安)은 『京劇前輩藝人回顧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삼마자에 이르러 관공희 혁명이 이루어졌다. 삼마자의 이런 동기는 칭찬할 만하다. 그는 배포가 크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며 그 자신이 아주 강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 삼국연의 중 관우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극으로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예술적인 동작들을 창조했다. 이런 동작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도 감히 시도해 본적이 없으며 더욱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到了三麻子, 却來了一個老爺戲的革命. 因此三麻子這一動機就值得表揚. 更因爲他肚子寬, 會的多, 本身又有極強的創造性, 所以他不但把三國演義中屬於關羽的故事都編成了戲, 而且在表演方法上, 創造了更多的藝術性的動作, 這種動作, 可以說從來沒有人敢用, 也從來沒有人敢想的)<sup>37)</sup>.

위의 내용을 통해 그는 크게 두 방면으로 관우극 혁명을 단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삼국지연의』 속에 관우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극으로 창작했다는 것이다. 정장경 때에 관우극은 「戰長沙」, 「華容道」, 「古城會」, 「臨江會」, 「取南郡」, 「靑石山」 등 몇 편에 불과했다. 왕홍수는 『삼국지연의』와 『삼국지평화』, 그리고 민간전설에 의거하여 관우극 30여 편을 창작하여 관우의 모든 삶을 극 속에 녹여냈다.<sup>38)</sup> 둘째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관우의 형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상은 물론이고 칼 쓰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을 뿐 아니라 극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창법을 창조했다. 특히 관우의 충의한 얼굴 형상을 돋보이기 위해 그는 미응선이 사용한 음주법과 정장경이 사용한 얼굴 문지르는 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흥색으로 얼굴을 칠하고 눈에 눈썹과 봉황 눈을 그리고 7개의 사마귀를 2개의 사마귀로 고쳐 그렸다. 또한 머리 위에 두 개의 활 모양의 문양을 그리고 미간에는 박쥐와 흡사한 문양을 그려 그의 위엄 있고 장중한 새로운 관우의 형상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왕홍수는 관우극을

37) 蘇雪安, 『京劇前輩藝人回顧錄』.

38) 왕홍수가 창작한 관우극 극명과 내용은 본 논문 3장에 1)을 참조하기 바란다.

파격적으로 개혁하여 경극 배역 중 관우의 전문 배역인 '홍생(紅生)'을 창조했다.

왕홍수는 이렇게 새로운 관우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관공의 회상을 수집하여 여러 해 동안 그림 속에 있는 관공의 자세와 표정을 연구하여 위와 같은 걸출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런 성과는 어느 날 북경 광덕루에서 공연된 「둔토산(屯土山)」을 통해 '불 속에서 부활한 관우'로 증명된다.

당시 무대 앞에는 난간이 있고, 난간에는 그날의 연극 제목과 배우 이름을 적은 전단을 붙였다.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덧붙이다 보니 금방 두꺼워졌다. 관리인은 이를 떼어 난간 아래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았다. 그런데 맨 앞줄에 담배를 피우던 관중이 있었는데 그가 피우던 담뱃불이 쌓아둔 전단에 옮겨 붙은 것이다. 바로 그때 무대에서는 왕홍수가 관우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불 속에서 관우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졌다(當時的舞臺前邊有欄杆, 欄前貼報子紙(介紹當日的劇目和演員表), 因爲一張一張的貼, 太厚了, 服務員拿下來就掖在欄杆上了, 第一排有位抽水烟的觀衆, 吹烟核把臺欄積存的海報給引着了, 正好王鴻壽的關公在臺上, 這下, 關老爺顯聖就又傳開了).<sup>39)</sup>

이에 조정에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관우극 공연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당시 왕홍수의 관우극이 얼마나 명성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후 그의 관우를 표현하는 예술기법은 많은 배우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도 경극무대에서 활용되고 있다.

### 3) 배역의 전환: 노생에서 홍생으로

경극이 형성되기 전에 민간에서 공연되던 관우극은 주로 지방극에서 다양한 성장으로 공연되었다. 제여산(齊如山)의 『희극각색명사고(戲劇腳色名詞考)』에 의하면 주로 익양강으로 공연되었으며 당시에 관우를 연기하던 배역을 홍정(紅淨)이라 불렀다고 한다. 당시 주류였던 아부(雅部)인 곤강에서 관우극은 많이 공연되지 않았고 주로 익양강이 북경에서 발전한 경강(京腔)에서 관우극을 공연할 때가

39) 李洪春, 劉松岩, 『京劇長談』(中國戲劇出版社, 1982), 54쪽.

많았다고 한다.<sup>40)</sup> 이로 관우극이 일반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극 배역은 극중인물의 성별, 연령, 신분, 성격과 연기특징에 따라 크게 남자역(生), 여자역(旦), 얼굴을 그린 개성파역(淨), 어릿광대역(丑)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생 배역은 다시 나이든 남자(老生), 젊은 남자(小生), 무예에 능한 남자(武生), 붉은 얼굴의 남자(紅生), 어린남자(娃娃生) 등으로 나뉜다. 노생은 최고의 가창력이 요구되는 중년 이상의 강직하고 긍정적인 남성 역을 연기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륭시기 경극이 형성되면서 가경과 도광 연간에 북경 무대에는 미희자가 그리고 함풍연간에는 정장경 등이 나와 각자의 특장을 살린 관우극을 공연하며 인기 물이를 하지만 그들은 노생 배역으로서 관우를 공연한 것이다. 전문적으로 관우를 공연하는 배역을 홍생이라 한다. 진정한 홍생으로 경극 무대에서 관우를 연기한 사람은 왕홍수이고, 이 홍생 배역은 왕홍수에 의해 완성되었다.

남파의 왕홍수와 북파의 왕복련, 정영룡이 관우극을 공연하면서부터 관우극이 홍생역으로 발전하였다. 공연작품이 많아졌고, 예술표현도 더욱 풍부해지고 특색을 갖추었다. 그래서 관우극이 중국 전역에서 일시에 유행하게 되었고, 홍생 이 배역이 경극의 중요한 배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自從南派的王鴻壽北派的王福連程永龍演唱關羽戲以來, 才把關羽戲, 發展到紅生階段. 演唱劇目增多起來, 表演藝術也更加豐富和更具特色. 於是關羽戲在大江南北, 曾風行一時, 紅生這一行當, 就成了京劇中的重要行當之一).<sup>41)</sup>

이로부터 관우는 노생배역이 아닌 홍생 배역이 전문적으로 연기하여 붉은색 얼굴에 높고 힘찬 노래, 장엄하고 간결한 동작 등으로 관우의 위엄과 용감무쌍함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경극 관우극이 또 다른 차원에서 발전하는 대표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40) 제여산

41) 『劉奎官舞臺藝術』, 147쪽.

#### 4.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대 관우 숭배 현상은 경극 관우극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관우 숭배 현상이 최정점에 이른 청대에 관우는 위로는 황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족뿐만 아니라 이민족까지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이 되었다. 이런 신격화는 청말에 내외외환을 극복하기 위한 매개체가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경극무대에서도 관우극은 더욱 중요한 연극이 되었다. 이처럼 중국연극의 발전과정 속에 민간신앙이 갖는 의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관우극은 관우의 신격화된 이미지로 인해 다른 작품과는 다른 특수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 민중들이 경극을 관람할 때에는 차를 마시고 담배 피우며 잡담을 나누는 등 어수선하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관우극을 공연하고 관우가 등장할 때면 모든 관중이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관람하였다. 이는 황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궁중에서 관우극을 공연할 때면 관우가 등장하면 황제들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은 걸은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 모두가 관우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이 부분은 관우극의 특수한 공연문화 부분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관우 숭배가 경극 관우극 발전과 연관성이 많은 내용에만 국한하였으며 이 내용들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參考文獻〉

- 『欽定大清會典事例』, 中華書局影印.  
 『清史稿』, 洪氏出版社.  
 王嵩儒, 『掌故拾零』.  
 陳壽, 『三國志』.  
 徐珂, 『清神類鈔』, 中華書局, 1986.  
 蔣瑞藻, 『小說考證拾遺』, 中華書局, 1986.  
 昭槤, 『嘯亭雜錄』, 中華書局, 1980.



- 蔡東洲·文廷海, 『關羽崇拜研究』, 巴蜀書社, 2001.
-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91.
- 王振忠, 『明清徽商與淮揚社會變遷』, 北京, 三聯書店, 1996.
- 『中國京劇史』(中國戲劇出版社, 1990).
- 齊如山, 『京劇的變遷』, 遼寧教育出版社, 2008.
- 王政要, 『清代戲劇文化史論』, 北京大學出版社, 2005.
- 么書儀, 『晚晴戲曲的改革』, 人民文學出版社, 2006.
- 이미이즈미 준노스케, 이만옥 옮김, 『관우』, 예담, 2002.
-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 사계절, 2002.
-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 오금성, 『중국근세사회경제사연구』, 일조각, 1986.
- 임계순,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1.
- 로이드 E. 이스트만, 이승희 역,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1997.
- 정철웅, 『역사와 환경—중국 명청시대의 경우』, 책세상, 2002.
- 陳志勇, 「關公戲演出禁忌的生成與禳解」, 『戲曲研究』, 제75집.
- 么書儀, 「晚清關公戲演出與俗人的關羽崇拜」, 『戲曲研究』, 제61집.
- 이화승, 「관공신앙과 산삼상인의 발전」, 『동양사학연구』, 제112집.
- 구은아, 「중국의 관공신앙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30집.
- 유지원, 「청대 황실제사의 사머니즘적 성격·당자와 곤녕궁 제사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23집.

〈中文提要〉

清朝时期, 由于统治阶段自身的需要, 制造关羽的神性, 并通过立庙设祀, 把关羽信仰灌输到市民百姓中去。无论从祭祀的规模和仪式, 关庙创建的范围和数量, 以及信仰和崇拜者的广泛而论, 都表明清朝时期人们对关羽的神化和崇拜已达到空前的程度。通过清皇帝的推波助澜, 所赐封号由侯而帝君而大帝, 祭祀规模由群祀而中祀; 关庙创建的范围由窄而广, 数量由少而多; 关羽成为人神之首, 凡助战斗、治病除灾、佑科举、诛伐叛逆, 无所不能, 具有多方面的神格, 其崇拜和信仰者极为广泛。这些都显示了清朝关羽崇拜已达到历史的最高峰。在其深远影响下, 京剧关公戏呈现出情节动人的剧目和名家演技精彩等态势, 成为清代京剧关公戏的一个极为突出的发展。

362 中國文化研究 第27輯

關鍵詞：關羽, 關羽崇拜, 關廟, 關公戲, 王鴻壽

이 논문은 2015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